

◆교회목표◆

천국일꾼을 키우자
지역사회에 봉사하자
우리세대에 민족복음화를 이룩하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14)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신성종 편집인:오태희 편집국장:조선근

서로 알고 지냅시다

활기 넘치는 각 교구 친교회
금주에는 13교구(9일), 1교구(11일)



1993년을 맞으며 각 교구의 지도교역자가 교체되고 교구의 증설로 일부 소속 교구가 변경됨에 따라 각 교구 식구들의 단합과 친교를 위한 모임이 매 주간 교구별로 실시되고 있다.

어린이들까지 교구의 모든 식구들이 저녁 시간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친교의 시간을 가지면서 매 주일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얼굴도 모르고, 서로의 이름도 모르고 하던 사람들이 서로를 알고, 확인하게 되는 일들이 이 시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연초에 이런 모임을 통해 교구장 및 교구교역자들의 1년 계획 및 목표, 강조 사항들이 함께 전달되기도 할 뿐 아니라 교우들과 공식적이 아닌 입장에서 만나게 되어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이전에는 우리 교구 장로님이 무척 엄격하신 분으로만 알고 무서워 했는데 오늘

이런 모임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서로를 잘 몰랐었는데 오늘 각 가정의 식구들을 모두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이런 모임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테고 1년에 1,2회 정도는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교구모임의 유익함을 말하고 있다.

각 교구들은 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인 성도간의 교제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각 교구의 남녀 전도회에서는 부부찬양모임, 체육대회, 부부 수련회 등 친교모임과 교제모임을 가지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다.

금주에도 9일(화) 오후 6시 30분부터 제13교구모임이, 11일(목) 오후 7시에는 제1교구모임이 만나홀에서 계획되어 있다. 16(화)에는 제2교구, 21일(주일)에는 제11교구의 교구모임이 준비 중에 있다.

1993년 군전도회 총회 모여

'93년 사업계획 확정 및 병무 상담실 운영키로

군전도회 '93년 총회가 지난 1월 29일(금) 저녁 7시 선교관 405호에서 회장 김재명 장로, 전도위원장 손동은 장로, 고문 최대원, 박영식, 임봉남, 이하영, 김여순 장로와 군전도회 부회장 강협 장로의 64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1부 경건의 시간에는 찬송 378장과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을 봉독하고, 회장 김재명 장로가 "더욱 많이 힘쓰자"는 제목으로 60만 대군을 복음화하는데 힘쓰며 합심해서 열심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2부는 임원인준과 인사소개가 있는 후 '93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병무상담실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1993년에는 군부대전도(사병 및 장교훈련) 및 군목지원, 군복무자 위문 등의 일을 할 예정이고 특히 병무상담실을 상설로 운영할 계획이다.

병무상담실에서는 군입대 전, 후 또 병영 생활 중의 애로사항을 상담하여 성공적인 군생활을 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상담시간은 매 주일 3부 예배 후 교육관 112호에서 있을 예정이다.

또한 예비역, 현역, 군인가족, 군과 관계가 있는 분들이 회원에 가입하여 군복음화에 힘쓰기를 기대하며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것도 매주일 3부 예배 후 교육관 112호에서 접수하고 있다.

◀ 1993 군전도회 총회 모습



다함께 망글까지 지난주일 우리는 모두 선교주일로 지켰으며 선교에 대해 새롭게 동참하는 마음을 가졌다. 선교의 총력, 선교의 헌신에, 선교주일 공과 등을 통해 선교란 바로 우리 모두가 '망글까지' 가는 일에 함께 하는 것임을 알았다. (사진/이승철 집사)

오늘 새가족환영회

IV부 예배 후 본당에서

오늘 IV부 예배 후 본당에서 교구위원회 주관으로 새가족환영회가 열린다.

이번 환영회에서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금년 1월 사이에 등록한 새가족들을 환영하게 되는데, 당회장 신성종 목사가 교회를 대표하여 이들을 환영하고 교구일꾼들을 소개하며 새가족들 중에서 그 동안의 신앙 생활을 간증하고 각 교구별로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서 교제를 나누게 된다.

작년 11월 15일 이후부터 1월 사이에 등록한 새가족들과 인도자, 그리고 교구일꾼 전원은 이에 참석하여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주간충현》 편집실은 교우들의 귀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간증, 독후감, 문예물(시, 일기문, 기행문 등), 미담소개, 해당부서 소개 등으로 함께 나누어 피차 도움이 될 내용이면 됩니다.

연락처는 《주간충현》 편집실(선교관 3층 303호, 전화 552-8200, 교환 348, 349)입니다.

원로목사·당회장 동정

1. 김청인 원로목사
· 2월 7일, 중앙성결교회 권사, 장로 헌신예배에서 설교
2. 당회장 신성종 목사
· 2월 8일, 서울영동교회에서 열리는 복음주의협의회 조찬세미나에서 주제 발표
· 2월 9일, 충신대 목회신학원에서 특강
· 2월 10일, 대만 기독교총회회장단과 면담

고등부 학부모 기도회

매주 수요일 1부 예배 전

주일학교 고등부(부장 최성현 장로)는 지난 2월 3일(수)부터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모여 매주 수요일 1부 예배 전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베다니홀에서 학부모 기도회를 갖고 있다. 이 시간에는 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고등학생의 가정과 학교, 교회에서의 신앙 교육지도와 수험생 관리, 청소년의 심리 및 정서 발달상황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고등부 지도 장봉생 목사가 이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다.

■ 중헌강단 ■

초대하시는 예수님

(마 11:20 - 30)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가 있을진저 벳새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배움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마 11:20, 21)

신 성 종

<목사·당회장>



이 세상에 크게 두 종류의 초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기분 나쁜 초대입니다. 혹 경찰서에서나 세무서에서 잠깐 오라고 하면 걱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초청은 기다려지고 영광스럽고 기쁨이 되는 초청이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한 경찰에게 초청을 받았습다. 만일 경찰서로 오라고 했으면 기분이 나빴을 텐데 다행히도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교회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성경에 관한 이야기도 하면서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초청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굉장한 초청이 있습니다. 바로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초청했습니다.

1. 초청의 이유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왜 초청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 역설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진리는 똑똑한 사람, 영리한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 빨리 깨닫고 먼저 터득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잘난 사람이 먼저 터득하지 못합니다. 잘난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줄다가 갑니다. 교회에서 보면 오히려 낮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먼저 깨닫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돌아갈 때에도 기분이 좋아서 찬송하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좋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려갈수록 좋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마 11:25)

이 말씀은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복음은 슬기롭고 지혜있는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슬기롭고 지혜있는 사람이란 자칭 슬기롭고 지혜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잘난 사람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어린아이라는 말은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은 항상 조심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생각해봐도 건강하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조심하지 않다가 갑자기 죽습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어려서 그제 하나님께 힘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욱 진리를 잘 깨닫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들이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소자들아”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의 표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슬기롭고 지혜있는 척해서는 안됩니다.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 영적으로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린아이입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몇 년 지나면 부모보다 더 많이 압니다. 열심히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이유는 나중 된 자는 아무것도 몰라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가르치는 대로 다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리를 나타내시고, 반대로 자칭 지혜있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리를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세계에 있어서 최고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어린아이를 표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2. 그리스도의 초청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초청을 받으면 우리들은 먼저 목욕을 합니다. 남자들은 이발소에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을 초

청한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도 목욕을 해야 합니다. 그 목욕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중생하는 것입니다. 손과 발도 씻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회개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셨습니다. 나는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죄인이 갑니다. 그것도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이 천국에 갑니다. 자칭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수고한다는 말은 피곤하다, 열심히 일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피곤할까요?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자기가 원치 않으면서도 마치 소나 말처럼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피곤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주님께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좀 더 영적인 면에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의식과 율법의 짐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의식은 굉장히 복잡했고 힘들었습니다. 양을 드라고 염소를 드라고 실일조 생활과 모든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더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이 세상 짐 중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3. 참된 안식을 얻는 방법

첫째는 “내게 요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교회에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 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초청에 대한 응답입니다.

두번째는 “나의 명을 메고”라는 것입니다. 이는 은유적인 표현인데 소가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 때 목에 명을 메고 합니

다. 유대당은 비옥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소 두 마리를 한 쟁기에 메어서 밭을 갈았다. 여기서 명이라는 말은 갈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명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명을 메어야 억지로라도 교회에 나오고, 그러다 보면 주님의 일을 하고 기쁨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명을 메어야 합니다. 세상의 명에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에는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세번째는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원어로 ‘마테테’라는 말인데 ‘마테테스’(제자)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게 배우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배우라는 것이고, 배우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배우는 사람의 마음에 천국이 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들을 초청하셔서 세상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적으로 볼 때 쉬다는 것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남자들은 직장에서 부지런히 일하다가 은퇴를 하면 그때부터 병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쉬다는 말은 속박에서 벗어나는다는 말입니다. 최악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해결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쉬다는 것은 첫째는 안식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이 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하면서 쉬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면서 쉬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쉬운 진리, 기독교 신자면 누구든지 다 아는 구절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영적으로 고달픈니까? 그리스도에게 나오십시오. 육적으로 고달픈니까? 그리스도에게 나오십시오. 우리들을 쉬게 해주시고,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안과 안식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미쳐야 성공한다

인간은 무엇인가 미쳐야 한다. 본래 미친다는 말은 도달했다(reached)는 뜻이다. 그런데 세상에 보면 별의 별 것에 다 미쳐 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 죽을 듯 팔 등 돈벌려고 야단이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술에 미쳐 작품을 만들기 위해 밤잠을 안자면서 일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도박에 미쳐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마약에 미쳐서 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뭔가 큰 일을 하려면 한 가지 일에 미쳐야 한다. 그러나 아무데나 미쳐서는 안되고, 바로 미쳐야 성공한다.

그러면 바로 미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예수에 미치는 것이요, 주님의 일에 미치는 것이다. 선한 일에 미치는 것이요, 섬기는 일에 미치는 것을 말한다. 예수에게 미칠 때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리게 되고, 참 행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예수에 미치고, 주의 일에 미치고, 선한 일에 미치고, 섬기는 일에 미치는 한 해가 되게 하자.

신성종 목사 설교 방송

- 극동방송(FEBC) 1188KHz
토요일 오후 6:30~7:00
- 기독교방송(CBS) 837KHz
주 일 오후 7:00~7:30
- 미주기독교방송(KCBN)
수요일 오전 9:10~10:00
목요일 오후 6:10~7:00

선교지에서 생긴 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영육을 함께 치료하며

4년전에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저희가 이와같이 4년 동안의 임기를 마치고 작년 12월 말로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는데 다 간증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간단히 한가지만 보고 드림으로써 저희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4년전에 선교사로 파송받고 나가면서 '어떻게 하여야 이 귀하고 막중한 주님의 일을 바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때 저는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 하지 못했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열심히 진료를 하면서 틈나는대로 전도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한 성도님께서 '당신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기에 제가 그저 대답한 것이 '예수님께 하듯 환자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제 심령 속에 성령께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제가 특별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열심히 성의껏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사모아에 4년 있는 동안 큰 태풍이 2번 불었는데 처음 태풍은 큰 비를 동반하고 왔기 때문에 나무들이 무너지고 전신주가 쓰러지고 길이 파여서 한달 동안 전기와 수도가 없는 환경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태풍이 불었을 때에는 어떻게 바람이 세게 불었는지 사모아에 있었던 집의 50%가 지붕이 다 날아가면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두번째 태풍을 당하면서 저에게 심한 편두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분마다 비명을 지르면서 통증 때문에 고통을 했는데 병원에서 모든 약을 갖다써도 의사인 제가 치료를 해도 잘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가서 교회 장로님들에게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장로님들이 저에게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를 괴롭히는 악령이 물러 가라고 기도했을 때 그 통증이 사라졌고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밝히시면서 제가 4년동안 선교를 하면서 사모아 사람들

우상을 섬기던 수상이 부흥회에서 은혜받고 국가적인 금식기도를 선포

에게 어떤 때는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또 오해를 받기도 하며 상처를 받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악령이 틈탈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 전에는 머리로만 알았던 것들을 그 사건이 있는 후로 실제적인 존재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귀신들이 나오는 구절들마다 다시 집중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역이 바뀌게 되었고 그동안 정성을 다해서 환자들을 진료하던 것을 넘어서서 환자들에게 찾아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한 것을 먼저 회개케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의술을 통해서 진료 했을 때 놀라운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던 선교였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4년간의 선교를 마감하면서 사모아가 뭔가 새롭게 거듭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사모아에 있는 여러 신앙동지들과 같이 일주일에 한번씩 금식하면서 이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작년 9월에 그 나라 역사상 아주 큰 대대적인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집회를 갖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우상을 섬기고 있던 수상님께서 참석을 하여 여러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는 순간 그분의 병들이 낫게 되었고 그분이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과 상의해서 국가적인 금식기도를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생긴 열매의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동안의 선교보고를 대신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1월 31일 선교주일을 맞아 선교위원회 헌신예배에서 선교지에서 생긴 일을 간증하는 박행렬·장부용 평신도선교사 부부



※칼럼 / 역삼동에서※

비록 구더기가 생길지라도

김 양 흠

<목사, 선교위원회·제22교구 지도>

우리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라는 말이 있다.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신중한 것은 좋은데 너무 신중한 나머지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계획적으로 일을 할 수는 없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망대를 짓는 사람이 미리 계산을 해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니다. 우리의 계획을 뛰어 넘는 다른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 더 그러하다. 계산하지 않고서는 선교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계산만 가지고서도 선교를 할 수는 없다. 우리의 계산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 회교권의 선교나 공산권의 선교는 계산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복한 선교는 더욱 더 그렇다. 다른 지역보다 수 많은 희생을 치르고 경비를 치른다고 해도 쉽게 되어지지 않는다. 그런 연유로 사람들은 그런 지역의 선교를 마냥 기피하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 즉시로 열매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투자한 만큼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선교 때문에 이루어진 우리의 투자가 역공적으로 나타날 것이 두려워서 선교를 향한 우리의 손길이 끊어진다면 하나님의 선교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능력이다. 이것은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자가 소유할 수 있다. 기도가 뒷받침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믿음이 있다면 세계 선교는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한 말이 생각이 난다. 그는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이는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했다. 선교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이래야 하지 않을까? 비록 투자한 만큼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기대한 만큼 결실이 없다고 할지라도, 노력한 만큼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결국에 가서는

그 일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해야 하지 않을까?

지난 주일은 우리 모두가 선교주일로 지켰다. 우리의 선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모퉁이를 담당한다고 할진대 우리는 더

욱 더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본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선교에 대해 늘 깨어있어 세계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힘 다해 선교헌금을 드려야 할 것이다.

우리 총현교회 선교위원회에서는 93년도 선교사 배가 운동의 해로 정하고 선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선교를 향한 우리의 힘은 미약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앞장 서신 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힘이 결집되지 않고 결집되기만 한다면 이 일은 어렵지 않다고 확신을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담그기를 꺼려하는 우리의 마음에 있다. 비록 구더기가 생길지라도 장은 담귀야 한다. 선교주일을 보내면서 모든 부정적인 마음은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로 기초를 쌓아서 흔들리지 않는 선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 찬양대 주보에서 ◆

긴 외로움 끝에는.....

긴 외로움 끝에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지만

긴 방황의 몸짓속에
늘 홀로 버려진듯해

기쁠때 수많은 사람이
내 곁에 늘 함께 했지만
진정 나의 슬픔까지도 사랑한 것
주님 뿐임.

주님 슬픔까지 사랑할 수 있는
내 곁에 진정 하나 밖에 없는 분
수 많은 날 나를 허물어온
긴 외로움 저편에는
주님 사랑뿐.

이 수 현 <가브리엘찬양대 대원>

• 가브리엘찬양대에서 매주일 내는
GABRIEL CHORAL에서



토막소식

- ** 교구 새가족 환영 모임 및 친교 모임이** 잇달아 열리고 있다. 금주에는 제13교구(교구장, 정광호 장로)모임이 9일(화) 오후 7시에 선교관 지하 1층 만나홀에서 열리고 11일(목) 오후 7시에도 제1교구(교구장, 이종석 장로)의 모임이 선교관 지하 1층 만나홀에서 열린다. 이러한 모임은 새해를 맞으며 단합과 화목을 위한 것이며 해당 교구의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다.
- ** 영아부는** 2월 7일 자체 사무 점열을 실시하여 연초의 자칫 미비하기 쉬운 행정부문을 바로 하려고 한다.
- ** 유치부는** 2월 7일 학생 대상으로 (심계명, 사도신경 외우기)를 실시한다.
- ** 초등1부는** 2월 한달을 교사 심방의 달로 정하고 부장단 및 지도 교역자가 교사들

의 가정을 심방할 계획이다.

- ** 초등3부는** 2월 한달을 반별친교 및 전체 학생 심방으로 분주하다. 각 반 담임이 주관하여 교회내에서, 담임 교사 집에서, 교회 밖에서 모여 반별 친교를 가진다.
- ** 초등4부는** 2월 한달을 반별친교로 모여 반 전체가 한 마음으로 뭉쳐 1년 동안 잘 지낼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다.
- ** 초등5부는** 2월 7일 자체 사무 점열을 통해 각 처 및 과 일지 정리상태 및 각 담임들의 출석부 정리 상태등을 점검한다.
- ** 중등2부는** 2월 한달을 학생 심방 및 반별 친교의 달로 정하고 각 반별 모임이 활발하다
- ** 대학부는** 지난 2월 1-4일 까지 총현기도원에서 겨울 수련회를 갖었다. "절망은 곧 희망입니다"라는 주제로 모여 4일 동안 지도 이병각 목사의 "예레미야" 강해가 있었다.
- ** 청년1부는**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임.조장 영성훈련을 실시하여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과 개념들에 대한 공부를 매 주일 한다. 강사는 청년 1부 지도 윤삼중 강도사.

- ** 청년2부는** 2월 27 - 3월 1일 까지의 겨울 수련회를 앞두고 준비에 한창이다. 매주 일 면려회 활동시간에 기도회를 갖고, 준비 위원별 모임이 주간 중에 계속 모여 내실 있는 수양회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 장년1부는** 2월 11일(목) 겨울 수련회를 갖는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주제 하에 지도 권성수 목사를 강사로 하여 모인다. 갈릴리홀에서 오후 7

시부터 모이는 이 겨울수련회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 특히 장년1부에 해당되는 30~40세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피아노가 필요합니다

봉사와 완공에 따라 봉사와 각 집회실에서 사용할 그랜드피아노 2대와 일반 피아노 3대가 필요합니다. 기증하실 분은 사무국(교육관102호)으로 연락바랍니다.

-선교지에서 온 소식-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무사히 호주에 도착 했습니다. 저희는 시드니 북부에 있는 Pymble 이라는 곳에 주당 A\$350 짜리 임대주택에 임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전화를 설치하고 통장을 개설하였으며 의료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29일에는 차량을 구입했는데 이곳은 통행방법과 교통법규가 한국과 전혀 달라서 10년이상 운전한 저로서도 초보 운전 보다는 더 서툰것 같습니다. 저희 주소와 전화번호를 먼저 알려드리고 차차로 이곳에서의 생활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소 : 29 Beechworth Rd Pymble Sydney N.S.W. Australia, 2073
전화 : 001-612-(44-4460)

Fax : Fax 번호가 같습니다. 자동전환장치기능. (이곳 시간은 서울보다 2시간 빠릅니다. 참고하십시오.)

시드니에서 이기성·박정아 드림



자원봉사자를 기다립니다

은 교우들의 대화와 교제의 장인 <주간총현>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귀한 달란트를 활용해서 다른 교우들을 섬기며 함께 일하는 기쁨을 나눌 자원봉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고작성, 교정, 편집, 디자인, 촬영 등에 소질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분은 <주간총현> 편집실(선교관 3층 303호, 전화 552-8200, 교환 348, 349)로 연락해 주십시오. 시간은 각자의 여건에 맞게 시간을 쪼개어서 할 수 있습니다.



♣ 우리는 지금 ♣

만나홀(식당) 봉사자들

주일 점심 3,500~4,000명이 식사 주간 중에도 계속적인 봉사

우 리 교회가 역삼동으로 이전하고 교회당을 완공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심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했던 것 중의 하나는 주방시설을 잘 갖춘 대규모 식당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더구나 충무로 시절의 그 웅장했던 식당(?)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통쾌감마저 주었을지도 모른다. 현대의 교회들은 성도간의 교제를 매우 귀하게 여겨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주일은 다함께 음식을 나누며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는 일이 보편화되어 있다. 아마도 현대 교회건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시설이 식당일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식당시설이 있다해도 그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여러 사람의 희생적인 수고가 반드시 요구된다. 특히 우리 교회와 같이 매머드급의 시설일 경우는 더더욱 그럴 것이다.

주일이면 식당은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정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분주하다. 1,2부 찬양대와 예배위원 차량부 봉사원들은 새벽에 집에서 나오기에 대부분 아침을 거르고 나오게 된다. 식당에서

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아침식사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교회학교 교사와 찬양대원, 각 부서 임직원들도 아침 일찍부터 교회에 나와 주로 저녁 찬양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기에 교회에서 모든 끼니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

주일점심에는 많은 인원이 식사를 빠른 시간에 마치기 위해 국수로 통일된 식사를 제공한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다 먹을 수 있다. 교회는 식당운영문제로 여러가지 방법을 써 보았지만 결국 원하는 사람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이 방

안이 채택됐고 이는 지금까지 가장 좋은 방법으로 통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식당 봉사자들의 많은 수고가 필요해 졌다. 주일 점심에는 3,500~4,000명 정도가 교회 식당을 이용해서 식사를 한다. 만나홀에 최대 수요일수 있는 인원이 400여명 이니까 10번 정도의 교대를 해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아마도 단일 시간 내에 인원으로는 기네스북에 오를 숫자인지도 모른다. 또 요즈음은 저녁 찬양예배 후에 미주 찬양대 연습관계로 저녁식사로 준비한다.

식당 책임자인 박정구 권사는 "참으로 고마운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식당이 운영된 이후 매주일 새벽마다 오셔서 봉사와 수고를 아끼지 않는 김분식 권사님은 저희들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또한 손이 가장 필요한 주일 낮시간에 각 교구 여전도회에서 교대로 나와서 돕고 있지요.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와서 도와주지요." 이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봉사자들이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식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식당은 주간 중에 각 교구 남녀 전도회 및 각 부서들의 모임 장소로 적절하게 이용된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 해야되는데 일반음식점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방해를 받게된다. 그런면에서 식당은 참으로 편리하고 유익한 장소가 아닐 수 없다. 식당과 사전에 약속을 해놓으면 일반음식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음식을 준비할 수 있고 아주 싼값에, 깨끗하고 맛있게 해주고 날이 갈수록 모임들을 교회에서 가지게 되는 것 같다. 따라서 주간 중에도 교회를 자주 찾게 되고 또한 모임들을 교회에서 가지게 됨으로 우리의 삶이 교회중심적이 되어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하는 동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을 목사 박 권사는 "모두가 잘 협조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전보다는 질서의식이 매우 좋아진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은 예고없이 주방의 기구들을 가져가서 사용하고 제자리에 갖다놓지 않을 때입니다. 써야 할 때에 기구들이 없어서 당황할 때가 있지요"

식당은 책임자 박 권사 외에 박민례 권사, 박순옥 권사, 정순옥 집사, 신복선 집사, 윤경춘 집사, 양순자 집사, 최미선 권찰 등 8명이 상근 봉사자로 있다. 이들은 주일은 물론 각종 행사, 교구모임, 각 지회모임, 결혼 피로연, 주간중 교회 직원 점심식사 등 식당을 이용하는 모든 일들을 준비한다. 갈수록 식당을 이용하는 모임이 더욱 많아 질 것이지만 이들은 조금도 싫은 표정이 없이 즐겁게 일 하는 모습이 꼭 인상적이었다. 주부들이 집에서 자신이 만든 음식을 식구들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볼때 보람을 느끼듯이 이들도 아마 이런 심정일 것이다.

